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지난 체험 학습 때 생태 공원의 교육관에서 함께 시청했던 다큐멘터리를 기억하시죠? 저는 그와 관련하여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은 ○○ 나라의 항구 도시 □□입니다. 과거 이 지역은 수중 생물들이 방파제 역할을 했으나, 항구가 건설되면서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어 물이 범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운하인데요, 이 운하가 만들어져 물이 잘 순환되지 않아 오염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어 왔는데, 최근에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 시간에 굴이나 홍합이 자연의 방파제가 될 수 있고 물을 정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대부분 기억하시는군요. 제가 소개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굴의 능력을 활용한 것입니다. □□ 도시의 해안가에는 원래 굴이 많이 서식했지만, 항구와 운하를 만들면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굴의 서식지를 복원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굴 서식지를 대규모로 조성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굴 서식지가 조성되면 물이 정화되고 암초처럼 크고 단단하게 굳어진 굴 구조체가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굴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운하에도 굴이 있습니다. 운하에서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을 설치하여 어린 굴을 키웁니다. 이 장치의 부표 아래에는 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있으며, 통로 양옆에 굴을 키우는 방이 있습니다. 이곳의 굴들은 성장하면서 운하의 물을 정화합니다. 이 장치에서 어린 굴이 어느 정도 자라면 해안가 근처의 암초망으로 옮겨지고, 그곳에서 작은 굴 구조체 덩어리가 형성되면 대규모 서식지로 옮겨집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과도에 의한 물의 범람이 없어지고, 깨끗한 물로 둘러싸인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키며) 이곳에 대규모로 만들어진 굴 서식지에는 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 복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청중과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② 발표 순서를 제시하여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여러 사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며 발표의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다.
- ④ 발표 중간중간에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 <보기>는 발표에 활용된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세운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㉑을 짚으며 ㉑이 만들어져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해야겠어.
- ② ㉑을 짚으며 ㉑에 설치되는 ‘떠 있는 용승 시스템’의 기능과 구조에 대해 설명해야겠어.
- ③ ㉔을 짚으며 ㉔이 조성되었을 때 나타날 변화를 제시해야겠어.
- ④ ㉔을 짚으며 굴 서식지의 확대로 ㉔에 새롭게 조성되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안을 설명해야겠어.
- ⑤ ㉕을 짚으며 프로젝트의 완성으로 ㉕에 기대되는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3. <보기>는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학생 1: 굴 구조체를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얼마 전 △△ 나라에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어 해일이 심해졌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맹그로브 숲이 복원될 필요가 있겠어.

학생 2: 도시 가까이에 생태계를 복원해 친환경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좋았어. 그런데 굴이 오염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을까?

학생 3: 대규모 굴 서식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낮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운하가 만들어진 후 물이 잘 순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발표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아쉬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 있는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4~7]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 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2: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

학생 3: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A]

학생 1: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너희들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학생 1, 3: 응, 그래.

학생 1: ㉢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학생 2: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학생 1, 3: 그게 좋겠다.

학생 3: 내가 취재해 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학생 1: ㉤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

학생 1: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학생 2: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학생 3: 그런 내용은 기사문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어. [B]

학생 2: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

학생 1: 응, 그래.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언급하면 어때?

학생 2, 3: 좋아.

학생 1: 그럼, 이제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나)

[표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전문] 4월 3일(수), 3학년 7반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

[본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여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달에 1번씩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한다. 다음 달 급식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했다. 메뉴로는 흑미밥, 대패 삼겹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된장국, 구슬 아이스크림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3학년 7반 학생들은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식단표의 열량 정보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급식 메뉴를 결정했다.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호응이 좋을 경우,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다른 학생이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발화이다.

5.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도하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해야겠어. ㉠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행사의 효과를 부각해야겠어. ㉡
-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
-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퇴고 과정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기사문의 초고를 살피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학생 2: 그래, 맞아. 글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②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선정 메뉴에 대한 불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③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다 보니 학교 급식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메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 ④ 이 과정에 참여한 ○○○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 노고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⑤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 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8~10] 글을 쓰기 위해 (가)의 메모를 작성한 후, (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다)를 작성하였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학습 활동 과제: 사회적 쟁점에 대해 학급 학생들에게 의견을 밝히는 글을 쓴다.
- 학급 학생들에 대한 분석

- 일부 학생들은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
-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다. ㉡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나와 상반된 견해를 가진 학생들도 있다. ㉢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 무인 항공기인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 (중략) ...

㉡ 최근 기술의 발달로 드론이 더 작고 가벼워짐에 따라 주택가, 사무실 등에서 비행이 가능해져 비행 중에 여러 가지 개인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법학자들은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이 드론에 의해 침해되는 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중략) ...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이 있다. 드론 산업 관계자들은 사전 규제 방식을 택한 상태에서 ㉤ 드론 기술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정보의 수집·활용 등의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기술 전문 잡지 『○○』 -

(다) 학생의 초고

현재 우리나라는 드론의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해 ‘사전 규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활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대부분의 경우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사전 규제 방식의 유지에 찬성한다.

드론은 고성능 카메라나 통신 장비 등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동의 없이 개인의 초상, 성명, 주민 등록 번호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전송하는 중에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드론의 소형화, 경량화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사전 규제 방식이 유지되어야 함을 뒷받침한다.

드론은 인명 구조, 시설물 점검 등의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제조업, 물류 서비스 등의 민간 분야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규제 방법을 도입하면 드론을 이용하여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게 만들어, 사생활 침해는 더욱 심해지고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훼손, 가공 등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까지 증가할 것이다.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제

약이 적기 때문에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드론 기술과 산업이 더욱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산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개인의 기본권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이면 정보의 활용이 용이해져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헌법에서는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명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도록 하고 있고, 개인 정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때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8.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사전 규제 방식과 사후 규제 방식의 주요 내용을 제시한다.
- ② ㉡을 고려해,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용이한 드론의 특성을 언급한다.
- ③ ㉢을 고려해, 드론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적 원리와 한계를 설명한다.
- ④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사후 규제 방식의 도입으로 드론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입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9.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를 구체화하여,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② b를 토대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③ c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 개인의 기본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④ d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개인 정보의 침해를 예방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경제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 ⑤ e를 참고하여, 사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드론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10.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여러 나라에서 사후 규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한 예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을 들 수 있다.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신체나 재산 등의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손해액의 3~5배 정도를 배상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① 개인의 동의를 구한 상황에서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 ②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되 엄격한 기본권 보호 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이용을 막을 수 있다.
- ③ 드론의 활용 범위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하되 개인 정보의 침해 종류에 따라 손해 배상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④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규제를 완화하면 개인 정보의 복제, 유포, 위조 등으로 정보 주체에게 일어나는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
- ⑤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 방식을 절충해서 개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개인 정보의 악용으로 인한 신체나 재산상의 중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현대 국어에서는 음절의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되는 소리가 제한되어 있다. ㉠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된소리나 거센소리가 오면 모두 예사소리 'ㄱ, ㄷ, ㅂ'으로 교체되고, ㉡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때는 한 자음이 탈락한다. 그런데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앞 음절의 종성에 있던 자음이 곧바로 연음된다. 이렇게 연음되어 뒤 음절의 초성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 제 음가대로 발음된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다른 현상이 일어나 제 음가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 'ㄷ, ㅌ'으로 끝나는 말 뒤에 'ㅣ'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ㄷ, ㅌ'이 'ㄱ, ㄷ'으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또한 용언 어간 말음 'ㅎ'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뒤에 오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한다. ㉣ 용언 어간 말음 'ㅎ' 뒤에 'ㄱ, ㄷ, 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ㅎ'과 'ㄱ, ㄷ, ㅌ'이 거센소리로 축약되는데 이를 통해 용언 어간 말음 'ㅎ'이 존재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연음과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중세 국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현대 국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 국어에서는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중세 국어 자료를 살펴보면 '똥(돌)', '나라(나라)'와 같이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을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 시기에는 체언 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나라히'와 같이 연음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ㅎ'을 말음으로 가진 체언이 '과', '도'와 같은 조사와 결합하면 'ㅎ'이 뒤에 오는 'ㄱ, ㄷ'과 축약되어 'ㄱ, ㅌ'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서 'ㅎ'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체언이 'ㅎ'을 말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여 쓰였을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아서 'ㅎ'을 말음으로 가지지 않은 체언과 구별되지 않았다. 해당 체언이 연음이나 축약이 일어나는 자리에 쓰인 사례를 검토해야 체언 말음 'ㅎ'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1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뫼[한목]’을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② ‘농기[노키]’를 발음할 때, ㉡이 일어난다.
- ③ ‘끓지[끌치]’를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④ ‘값할[가팔]’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 ⑤ ‘맞힌[마친]’을 발음할 때, ㉢과 ㉣이 일어난다.

12. [A]를 참조하여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습 목표]
중세 국어 자료를 통해 체언 ‘하늬’에 대해 탐구한다.

[중세 국어 자료]

- ㉠ 하늬히 므스뵤 뉘우시니 (하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니)
- ㉡ 하늬 光明中에 드러 (하늘의 광명 가운데에 들어)
- ㉢ 하늬 섬기습듯 햏야 (하늘 섬기듯 하여)
- ㉣ 하늬토 뉘며 (하늘도 움직이며)
- ㉤ 하늬과 싸과를 니르니라 (하늘과 땅을 이르니라)

- ① ㉠에서는 연음되어 음운의 개수에 변동이 없지만, ㉡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는 ‘ㅎ’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다.
- ③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에서는 체언 말음 ‘ㅎ’의 존재를 알 수 없다.
- ④ ㉡와 ㉢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와 ㉤에서 체언에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조사 ‘토’, ‘과’가 결합했음을 알 수 있다.

13. <보기>의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 ㉢, ㉤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해볼까요?

[자료]

- 이 문제는 나한테 묻지 말고 그에게 물어라. (㉠)
-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눈으로는 풍경을 보았다. (㉢)
-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

- ①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② 공통점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 ③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④ 공통점은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 ⑤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것이고, 차이점은 ㉢, ㉤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14. 사전 자료의 일부인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쓰임을 탐구한 학습지 활동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ㄴ- 「어미」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볼 때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간다.

-ㄴ 「어미」
① 사건이나 행위가 과거 또는 말하는 이가 상정한 기준 시점보다 과거에 일어남을 나타내는 어미.
¶ 이것은 털실로 짠 옷이다.
②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어미.
¶ 누나는 유명한 성악가이다.

[학습지]
각 질문에 대해 ‘예’는 ○, ‘아니요’는 ×로 표시하시오.

질문	-ㄴ-	-ㄴ		
		①	②	
○ 다른 어미 앞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미 ‘-(으)시-’ 뒤에 붙을 수 있는가?	○	○	○	...㉢
○ 어간에 붙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가?	×	○	○	...㉤
○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가?	○	×	○	...㉡
○ 예문으로 ‘흰 눈이 내립니다.’를 추가할 수 있는가?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그 사람이 범인임이 확실히 밝혀졌다.
㉡ 부상을 당한 선수는 장애물 달리기를 포기하였다.
㉢ 학생들은 성적이 많이 오르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 ① ㉠은 명사절 속에 관형어가 한 개 있다.
- ② ㉡에는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④ ㉣은 ㉠과 달리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⑤ ㉡와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역법은 연월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역법의 ㉠ 운용과 역서의 발행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통치 행위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역법을 다루었고 그곳의 관리에게만 연구가 허락되었다. 『서경(書經)』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유교 문화권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관상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일이므로 고려 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거의 그대로 따라야 했다. 고려 초에 도입된 선명력은 정확성이 부족하여 고려 말에는 정확성이 높아진 수시력을 도입했다. 수시력은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곧 교식을 추보*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상황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애썼고 마침내 수시력에 ㉡ 통달했다고 자부했다. 그럼에도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했다.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시간 규범을 스스로 수립하고자 한 것이다. 수시력으로 교식을 추보할 때에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이때의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입성이란 천체의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 등을 실어 놓은 계산표이다.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입성을 제작하려 했다.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낮과 밤의 길이인 주야각을 추보하기 위해 한양의 위도 등을 알아내도록 명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칠정산 내편』이다. ‘칠정’이란 태양, 달, 다섯 행성의 운동을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했다는 뜻이다. 『칠정산 내편』은 중국 역법에 기반을 두었지만 교식과 천체 관측에 필요한 값들을 한양의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역법이라 할 수 있다.

『칠정산 내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 세종은 정묘년(1447년) 8월에 일어날 교식을 미리 추보하여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하게 했다. 그런데 이 추보에 오차가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 정비했다. 이 성과를 담은 책이 바로 세조 4년에 편찬된 『교식 추보법 가령』이다. 이 책은 정묘년(1447년) 8월의 교식을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계산식을 약간 달리했기 때문에 교식 추보 시각은 서로 달랐다. 두 가령의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 비교하더라도 그 방법론이 매우 정교하여 조선 역법의 뛰어난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일점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러므로 ㉤ 북반구에서 관측한 태양은 동지 즈음에 가장 빠르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 즈음에 가장 느리게 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칠정산 내편』은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고 보았다. 즉 동지와 하지에서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고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영,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이라 했다. ‘영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이다. 그러므로 영에서의 값인 ‘영차’는 양

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수록 빠르게 움직인다. ㉥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할 때인 근지점에서 ‘지질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지질차’란 달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근지점부터 달이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그리고 원지점부터 근지점까지는 그 반대이다. ㉦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 뒤처지면 ‘지차’라 했다.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태양을 가릴 때를 삭(朔),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놓여 달을 가릴 때를 망(望)이라 한다.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 위에 놓이게 될 때의 시각이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추보법 가령』 모두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경삭과 경망에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감하여 구했다.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 한다.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항 값으로 나누어 구했다.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 더하는 가차로 삼았고, 음일 때에는 그 값을 경삭, 경망에서 빼는 감차로 삼았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은 속도항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교식 추보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뺀 값을 활용했다. ㉧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로 달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고려한 것이다.

『칠정산 내편』 등을 통한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칠정산 내편』이 편찬된 지 200여년 뒤, 일본을 왕래하던 조선 통신사 사신 박안기는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전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서도 독자적인 역법 『정향력』이 완성되었다.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칠정산 내편』, 『정향력』 등은 자국의 고유한 역법을 ㉩ 확립하고자 했던 열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 추보: 천체의 운동을 관측함.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상수시의 개념을 소개하고 고려와 조선이 그것을 어떻게 변용하여 역법 제작에 응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선의 역법 발달 과정을 언급하고 동서양 문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천문과 역법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역법에 대한 유교적 관점을 드러내고 조선이 역법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와 그것이 끼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조선에서 교식 추보 방법이 발달했던 이유를 제시하고 교식 추보가 중국 천문학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선 역법의 우수성을 부각하고 당대에 관측한 값들이 현대적 관점에서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조선은 역법을 통해 천자를 부정하고 독자적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
- ② 조선은 교식 후보 이외에 여러 행성들의 운동도 역법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 ③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주도와 통제 아래 역법 연구가 수행되었다.
- ④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천체의 변화를 이해하여 하늘의 뜻을 알고자 역법을 마련했다.
- ⑤ 조선은 역법의 확립을 통해 유교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체계를 수립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18. 윗글과 <보기>를 관련지어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이전에는 선명력을 썼기 때문에 오차가 꽤 많았으나, 신(臣) 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역서 만드는 법이 어느 정도 바로잡혔다. 그러나 이번(세종 12년) 일식의 시작과 끝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 『세종실록』 권49

(나) (세종께서) “이 일의 요체는 북극출지의 고하(한양의 위도)를 정하는 데 있느니 먼저 간의를 만들어 올림이 좋겠다.”하시므로, …(중략)… 먼저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 북극출지 38도소를 정하니, 『원사(元史)』의 측정값과 부합하였으므로 마침내 구리를 녹여 부어 간의를 만들었다.

— 『세종실록』 권77

(다) 수시력과 통계의 체계에 근거하여 같은 점과 차이점을 가려서 정밀한 것을 가려 뽑고 거기에 몇가지 항목을 더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게 하고, 『칠정산 내편』이라고 했다. …(중략)… 수시력이나 통계법의 주야각은 각기 근거한 곳에서 추정된 것이므로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 이순지, 『사여전도통계』 발문(세종 26년)

- ① (가): 세종 즉위 전까지 조선에서 선명력을 사용해 교식을 후보할 때 오차가 컸겠군.
- ② (가): 세종 12년의 교식 후보의 오차 원인을 밝히기 위해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을 편찬한 것이군.
- ③ (나): 교식 후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선에서 천체 관측 기구가 제작되었겠군.
- ④ (다): 『칠정산 내편』 편찬에 기반이 되었던 중국의 역법으로는 수시력을 들 수 있겠군.
- ⑤ (다): 세종과 이순지 모두 중국의 주야각 입성이 우리나라의 주야각 입성과 다르다고 생각했겠군.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정묘년(1447년) 8월은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시점으로, 경삭이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과 『교식 후보법 가령』의 후보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2.39였고,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는 약 4.99였다.

- ① 정묘년 8월 경삭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 ② 정묘년 8월 정삭 후보에서 가감차 값은 『칠정산 내편 정묘년 교식 가령』이 『교식 후보법 가령』보다 더 컸을 것이다.
- ③ 정묘년 8월 정삭 후보에서 두 가령 모두 경삭에 가감차 값을 더하는 가차로 삼았을 것이다.
- ④ 정묘년 8월 정삭 후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영차를 사용했을 것이다.
- ⑤ 정묘년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있었을 것이다.

20. ㉠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조선에서 일어나는 교식을 정확히 후보하기 위해 수시력법을 연구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 ② ㉡: 낮의 길이와 공전 속도가 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③ ㉢: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고 간주했다.
- ④ ㉣: ‘질차’는 음의 값을, ‘지차’는 양의 값을 가진다고 보았다.
- ⑤ ㉤: 『교식 후보법 가령』의 속도항 값이 음의 값을 가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21. ㉠ ~ ㉤의 사전적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씬.
- ② ㉡: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봄.
- ③ ㉢: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
- ④ ㉣: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룸.
- ⑤ ㉤: 체계나 견해, 조직 따위가 굳게 씬. 또는 그렇게 함.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자본금을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수권주식총수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로, 수권주식총수를 통해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인수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출자자를 누구로 하는지, 그 출자자가 인수하려는 주식이 몇 주인지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출자자가 인수하고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총합이 바로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된다. 회사가 수권주식총수 가운데 아직 발행하지 않은 주식은 추후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필요에 따라 자본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로,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대량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양도되는데, 1주의 액면주식은 둘 이상으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주식회사가 액면가액을 표시한 액면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주식은 그 금액이 균일하여야 하며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주식의 총액은 주식회사 설립 시에 출자자가 주식을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과 같다.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당 등의 권리를 가지면서 회사에 대해 유한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이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 의무를 부담하고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주의 유한책임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도 가중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만이 회사 채권자를 위한 유일한 담보가 된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본질적 요소로 말미암아 자본 조달력을 가지기도 하지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자본금이 큰 회사이지만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에 자본금의 크기로는 회사의 신용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대주주가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고도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와 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파산이나 부도 등 회사의 위기 상황에서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등 회사의 이해 관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회사에 대한 법 규정에서는 자본금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을 마련하고 있다. ㉠ 자본 유지의 원칙은 자본금이 실제로 회사에 출자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본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본 충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만일 여러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로 출자된 자본금은 늘어나지 않는데 서류상 가공의 자본금만 늘어나 회

사는 부실화되고 외부의 위협에도 취약해진다. ㉡ 자본 불변의 원칙은 자본금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며 자본금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자본금의 증가는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반면에 자본금의 감소는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을 법에서 규정된 내용대로만 이행해야 하는 강행법으로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 사항 및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는 등 주식회사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 정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여 기록한 문서.

22.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액면주식 1주는 둘로 나뉘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 ②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 의무를 가진다.
- ③ 주주는 소유한 주식 금액의 비율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익을 배당받는다.
- ④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 ⑤ 주식회사의 정관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23. <보기>는 갑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작성한 정관의 일부이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2장 주식과 주권

제5조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만 주로 한다.

제6조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천 원으로 한다.

제7조 당 회사는 설립 시에 5천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 ① 갑이 설립하려는 주식회사의 수권주식총수는 1만 주이며 수권자본금은 5천만 원이다.
- ② 갑이 주식 1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정관의 제7조를 수정해도 주식회사의 설립은 가능하다.
- ③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식 1만 주에 대한 출자자가 확정되어야 한다.
- ④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 회사의 주주가 인수하여 납입한 금액의 총합은 2천5백만 원이다.
- ⑤ 갑이 정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이 회사의 미발행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 회사는 설립 시에 액면가액 5천 원의 주식을 1백만 주 발행하였고 홍길동은 이 주식의 80%를 인수하여 납입하였다. 이후 A 회사는 B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25억 원을 납입하였으며, B 회사는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 100%를 인수하여 15억 원을 납입하였다. 이후 C 회사는 A 회사의 주식 10억 원어치를 액면가액으로 사들였다. A, B, C 회사는 회사끼리 돌려 가며 출자를 반복하여 자본금에 관한 원칙을 위배했다.

- ① A 회사가 파산한다면 C 회사의 이해 관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군.
- ② B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A 회사의 자본금이 손실을 입을 수 있겠군.
- ③ A 회사의 주주인 홍길동은 B 회사와 C 회사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군.
- ④ C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80%를 B 회사가 인수하였더라도 C 회사의 설립 시 자본금은 달라지지 않겠군.
- ⑤ A, B, C 회사에 출자된 실제 자본금은 90억 원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A, B, C 회사의 자본금의 총합과 동일하겠군.

25. ㉠,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목적은 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에 있다.
- ② ㉡을 통해 소액을 가지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은 자본금 감소를 엄격하게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④ ㉠, ㉡은 모두 채권자가 주식회사의 자금 운용 내역을 알 수 있게 한다.
- ⑤ ㉠, ㉡은 모두 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주식 양도로 인한 폐해를 방지한다.

26.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우리는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갔다.
- ② 돌맹이가 발길에 자꾸 거쳐 다니기가 불편하다.
- ③ 그는 매일 아침 학교 앞 사거리를 거쳐서 회사로 간다.
- ④ 그 일들은 우리가 합의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 ⑤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여 마음에 거칠 것이 없어졌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의 대학 재학 시기 역시 학생 시위가 빈발하던 한일회담 진행기를 전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 이야기에 관한 그의 회상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심상치 않은 의식의 도착 증세가 엿보이고 있었다. 그는 교문을 뛰쳐나가고 싶어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학교를 다시 들어가려고 시위를 벌였노라는 주장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교문을 뛰쳐나가려던 쪽이 아니라, 그 교문을 다시 들어가려고 했던 쪽에 기억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다. 교문을 나가려 했던 쪽은 아예 기억조차 들추려 하지 않거나, 그 자신도 어찌면 그걸 까맣게 망각해 버리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기이한 의식의 전도였다.

하지만 윤일섭의 그런 도착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과 불평 가운데서도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는 학교 시절 이야기에 한동안 열을 올리다간 종종 자신도 모르게 그 은행 시절까지 훌쩍 말을 비약해 버리는 일이 흔했는데, 그렇게 되면 일섭에게는 이미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이 야기되곤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전 참 재수가 좋은 편이었어요. 우리는 끝끝내 그 교문을 맘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전 그보다도 더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 으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은행 문을 들어가서 생각하니 전 그때 교문을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심한 소동을 벌인 것이 사실은 그 화성인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 문이 아니라 은행 문을 돌진해 들어가기 위한 사전 연습이 아니었던가 싶어지는군요. 아마 선생님은 그 기분 모르실 겁니다. 하하…… 뭐랄까…… 선생님은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덴 줄 아십니까? 철창문을 가운데로 척 가로막아 놓고, 그 철창문 양쪽으로 한쪽에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 싶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한쪽에선 이미 그 철창문 안에다 자리를 잡아 놓고 바깥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려 쉴 새 없이 틈입자들을 감시하고 그자들을 내쫓을 채비를 하고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살벌한 대치장 같은 곳이지요. 안쪽 사람들은 그 채비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기회 있으시면 선생님이 언제 그 사람들이 싸움에 대비하고 있는 완벽한 포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맨 앞쪽 쇠창살가,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의 공격에 대비한 제일 방어선은 은행원들 중의 제일 쫓자들이 맡고 있어요. 그다음 제일 선에서 그 쫓자들을 지휘 독전할 자리는 대리급 위인들이…… 그런 식으로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지요. 이렇게 되면 자리가 가장 위험한 곳은 쇠창살 밑의 쫓자들 처지임이 뻔하지요. 싸움만 벌어졌다 하면 제일 먼저 체물이 되어야 할 친구들이 바로 그 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틈만 나면 늘 한 발이라도 뒷줄 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싶어 안달 아닙니까.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승진이라는 게 바로 그 일선 창살 아래서 한 발이라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으로 자리를 옮겨 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걸 바라지요. 그리고 좀처럼 해선 마음을 못 놓습니다. 싸움이 촉박하면 촉박해질수록 말입니다. 그런 점을 죄 알아차리고 보면 우리가 학교 시절에 그토록 열심히 시위를 벌이면서 소망한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은행 사무실의 그 희한하고도 음흉스런 좌석 배치의 비밀을 알고 나서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지요……”

걸잡을 수 없는 비약과 전도가 함부로 감행되고 있는 얘기였다.

손 박사는 그레 어느 날 마침내 윤일섭의 전 근무지 점포를 찾아가 본 일까지 있었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에 관한 이야기가 의외로 잦았던 데다 윤일섭의 그런 점포 얘기 가운데는 그에게도 분명하게 짚여 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략 줄거리] 윤일섭의 증세가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본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증이 호전된 윤일섭은 퇴원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윤일섭은 쇠울타리 속에 갇힌 동물원의 동물들을 보다가 손 박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심을 품게 된다.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없는 거 것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던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고안이었다. 선택을 받은 자들은 그 안전한 쇠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선 커다란 각성이었다. 하물며 그 울타리의 안락한 보호가 사자 따위 들짐승에게까지 이르러 있음에랴.

손 박사도 실상은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손 박사에게도 자신의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손 박사에게 그것이 없다면 정상이 아닌 것은 윤일섭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손 박사 쪽이었다.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피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꾀뽀하고 가소로운 위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 이청준, 「황홀한 실종」 -

27.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 속 서술자의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 이해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③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요약적 진술로 사건의 경과를 드러내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윤일섭이 ‘쇠창살’과 관련해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손 박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 ② ㉠은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왜곡된 기억이 ‘마음속의 쇠창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손 박사의 생각을 드러내 준다.
- ③ 윤일섭은 자신을 ‘쇠창살’ 밖으로 내몰려는 손 박사의 음모가 ㉠에 숨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은 정작 ‘쇠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은 ‘쇠울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고 비판한 손 박사의 생각에 상응하는 것이다.

29.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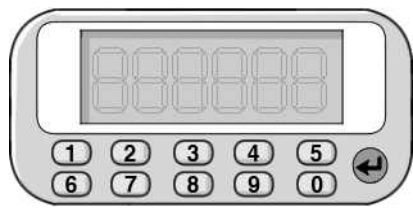
「황홀한 실종」에서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에서 여러 번 탈락한 후 ‘문 안쪽’에 대한 집착을 보이며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보게 된다. 자기 스스로를 유폐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의 태도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②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윤일섭의 모습은, 체제 속에서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연결된 것이겠군.
- ③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놓지 못하는 윤일섭의 모습에서,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윤일섭의 각성은, ‘문 안쪽’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를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이라고 한 윤일섭의 말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엿볼 수 있겠군.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 상거래를 할 때 온라인상에서 사용자 인증은 필수적이다. 정당한 사용자인지를 인증받는 흔한 방법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인증 기법이 OTP(One-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기술이다. OTP 기술은 사용자가 금융 거래 인증을 받고자 할 때마다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OTP 발생기를 통해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인증받는 방식이다.

OTP 기술은 크게 비동기화 방식과 동기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비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이 없는 방식으로, 인증 서버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OTP 기술 도입 초기에 사용된 질의 응답 방식은 인증 서버가 임의의 6자리 수, 즉 질의값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그 수를 OTP 발생기에 입력하고, OTP 발생기는 질의값과 다른 응답값을 생성한다. 사용자는 그 값을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고 인증 서버는 입력된 값을 확인한다. 이 방식은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질의값을 직접 입력해 응답값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하다.



<초기 OTP 발생기>

이와 달리 동기화 방식은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사이에 동기화*된 값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동기화 방식과 시간 동기화 방식이 있다.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기춑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기춑값이란 사용자의 신상 정보와 해당 금융 기관의 정보 등이 반영된 고유한 값이며, 카운트값이란 비밀번호를 생성한 횟수이다.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이벤트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기춑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비밀번호를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된다. 이때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마다 카운트값을 증가시킨다. 인증 서버 역시 기춑값과 카운트값으로 인증값을 생성하여 로그인 서버로 입력된 OTP 발생기의 비밀번호와 비교하는 것이다. 이때 인증에 성공하면 인증 서버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서 저장해 두었다가 다음번 인증에 반영한다. 그러나 이 방식은 OTP 발생기에서 비밀번호를 생성만 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OTP 발생기와 인증 서버 간에 카운트값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은 현재 금융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기춑값과 인증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일방향 함수를 통해 OTP 발생기는 비밀번호를, 인증 서버는 인증값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일방향 함수란 계산하기는 쉽지만 역연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함수로, 결과값을 안다고 하더라도 입력값을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시간 동기화 방식으로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사용자가 인증을 받아야 할 경우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는 발급 시 동기화된 기춑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 번

수행하여 x_n 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x_n 을 사용자가 로그인 서버에 입력하면, 로그인 서버는 입력된 x_n 을 일방향 함수 f 로 한 번 더 계산해 x_{n+1} 을 구하고 이 값을 인증 서버로 전달하게 된다. 인증 서버 역시 기춑값과 인증 시도 시간을 바탕으로 r 를 구하고, r 에 대해 일방향 함수 f 를 $n+1$ 번 수행하여 x_{n+1} 을 생성한 후 로그인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값과 비교하여 인증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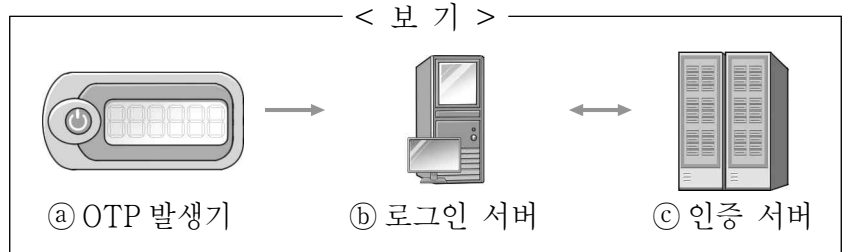
시간 동기화 방식의 OTP 발생기에는 인증 서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전자시계가 장착되어 있어 시간 동기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 서버와 OTP 발생기 간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인증에 실패한다. 또한 시간 동기화 방식은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 비해 입력 시간에도 제약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비밀번호 입력 시간이 길어지면 새로운 비밀번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 동기화: 서로 일관성 있게 같은 값을 유지하는 것. 같은 시점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

30. 밑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벤트 동기화 방식은 시간 동기화 방식에 비해 로그인 서버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② 비동기화 방식의 OTP 기술에서는 OTP 발생기의 질의에 사용자가 응답값을 인증 서버에 입력해야 인증에 성공한다.
- ③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는 고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없다.
- ④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는 비밀번호 생성 간격을 짧게 할수록 비밀번호가 바뀌는 횟수가 감소할 것이다.
- ⑤ 질의 응답 방식에서 사용자가 OTP 발생기에 입력한 임의의 6자리 수는 응답값과 일치할 것이다.

31.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인증에 성공하였다면 사용자가 (a)에서 (b)로 보낸 비밀번호와 (b)에서 생성한 인증값은 같을 것이다.
- ② 시간 동기화 방식에서 (a)와 (c) 사이에 시간 오차가 발생하면 (a)에서 생성한 비밀번호로는 인증에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③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는 기춑값과 카운트값을 바탕으로 (a)는 비밀번호를, (c)는 인증값을 생성할 것이다.
- ④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기만 하고 인증하지 않는다면 (a)와 (c)의 카운트값이 서로 달라질 것이다.
- ⑤ 이벤트 동기화 방식에서 (a)가 생성한 비밀번호로 인증을 받았다면 (c)는 카운트값을 증가시켜 다음번 인증에 반영할 것이다.

3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밀번호가 고정되지 않고 새롭게 생성되도록 하기 위해
- ② 인증 서버의 응답값과 카운트값을 일치시키기 위해
- ③ 인증에 성공할 때마다 기숫값을 동기화하기 위해
- ④ 인증에 실패 시 이전 비밀번호를 복원하기 위해
- ⑤ OTP 발생기의 질릿값이 갱신되도록 하기 위해

33.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사용자 A와 사용자 B는 모두 각자의 OTP 발생기를 통해 ㉠ 2019년 3월 7일 오전 10:00에 인증을 시도하고, ㉡ 오전 10:30에 인증을 다시 시도하였다. 그리고 ㉢ 다음날 오전 10:30에 다시 인증을 시도하였다.

- ① ㉠에서 x_n 이 노출되더라도 r는 알아내기가 어렵겠군.
- ② ㉠과 ㉡에서 사용자 A의 r는 서로 다르겠군.
- ③ ㉡과 ㉢에서 함수 f를 n번 수행한 x_n 은 같겠군.
- ④ ㉢에서 사용자 A와 사용자 B의 기숫값은 서로 다르겠군.
- ⑤ ㉠~㉢에서 사용자 B의 x_{n+1} 들은 서로 다르겠군.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김진옥은 승전 후 귀국하던 도중 풍랑으로 표류했다가 부친을 만나 용궁에 가게 된다. 남해 용왕의 요청에 따라 김진옥은 등국 용왕을 물리친다. 이때 무양 공주는 김진옥이 자신과의 혼인을 거부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이선영, 정동한 등과 계교를 짜 김진옥의 아내 유 부인과 아들 애운을 죽이려 한다. 용궁으로 돌아와 환대를 받은 김진옥은 용궁을 떠나려 한다.

용왕 왈,
 “이는 수중의 귀한 보배라.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엄동설한이라도 춥지 않을 것이요, 이 진주를 몸에 두면 칠십이 넘도록 녹발(綠髮)이 장춘(長春)이요, 또 죽은 사람의 입에 넣으면 환생하나니, 이는 극한 보배로소이다.”
 원수가 사양하다가 받으니, 용왕 왈,
 “원수는 대국의 신하라. 수부에 들어와 과인의 수부를 보전케 하니, 어찌 천자에게 현신을 두신 치하를 아니하리오.”
 하고, 글월을 닦아 원수께 부치고, 예단을 봉하여 주니, 원수가 사례하고 받으니, 일광노가 왈,
 “이제 이별을 당하니 무엇으로 표하리오.”
 하고, 일광주(日光珠) 한 알을 주고, 여동빈은 또 한 알 부채를 주어 왈,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운무가 자욱하고, 비 올 때에 부치면 꽃나무 가지마다 꽃이 만발하나니, 이는 큰 보배라. 그대는 잘 간수하라.”

하고, 두목지는 칼 하나를 주며 왈,
 “이 칼자루에 불을 켜면 밤이 낮 같고, 몸에 차면 귀신이 범하지 못할지니 가져가소서.”
 이적선이 또한 금표통(金瓢桶) 하나를 주며 왈,
 “이것이 비록 적으나 이 가운데 분로주라 하는 술이 있으니, 천만인이 먹어도 진(盡)치 못하나니 가져가라.”
 하니, 원수가 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별하고 용왕께 하직하고 부친을 모셔 길을 떠나 황성으로 향하여 오더라.
 각설, 차시에 무사가 애운을 물속에 넣으려 잡아가더니, 애운이 통곡 왈,
 “우리 모친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로 데려가노. 우리 모친도 야속하시도다.”
 하며 슬피 통곡하니, 무사가 잔인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달래어 왈,
 “진실로 가련하다. 천자의 명이 급하시니 우리 어찌 거역하리오.”
 하고, 이끌어 가다가 강수에 던지고 가니, ㉠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 소소(昭昭)한 창천(蒼天)이 굽어살피실지라.
 용왕이 그 강의 용신(龍神)에게 칙지를 내리사 물에 들어온 아이를 살리라 하시니, 용신이 오직 칙지를 받자와 물 밖으로 도로 내치니, 애운이 정신이 아득한 중 물을 무수히 토하고 모친을 부르고 동서로 방황하더라.
 (중략)
 무사가 달려들어 거상(車上)에 실으려 하니, 난영이 소저를 붙들고 슬피 통곡하여 왈,
 “가련하고 애닦을사, 유 부인 같은 요조숙녀 이렇게 참혹히 원사(冤死)할 줄 꿈에나 생각하였으리오. 천지신명과 일월성신과 황천후토(皇天后土) 굽어살피옵소서.”
 하고, 낭자를 붙들고 방성통곡하며, 남녘을 멀리 바라본들 그림자나 있으리오.
 한참 이렇듯 험난할 제, 선영과 동한 등의 호령이 추상 같아서, ‘바빠 베라.’ 재촉이 성화 같으니, 무사가 달려들어서 수레를 재촉하더라.
 각설, 김원수가 애운을 데리고 만리강에 다다르니, 강변에 한 척의 배도 없거늘, 가장 민망하여 사공을 찾으니, 한 사람이 나와 대답 왈,
 [가] “어제 예부에서 관리를 보내 만리강에 있는 배 수천 척을 도사공으로 하여금 계명(鷄鳴) 전에 다 올려 가게 했사오니, 비록 행차가 바쁘셔도 무가내하*로소이다.”
 원수가 차언을 듣고 양천 탄식하며 화산을 향하여 배례 왈,
 “이 강은 길이가 만 리요, 너비가 삼십 리라. 몸에 날개가 없으니 어찌 건너리이꼬. 선생은 진옥의 사정을 급히 살피소서.”
 하고 무수히 배례하더니, 이때 화산 도사가 천지 산간에서 낭자를 죽이려 하는 거동과, 원수가 강에 이르러 배가 없어 건너지 못하는 양을 보고 대경하여 급히 조화를 부려 일엽소선을 지휘하여 빨리 강변에 닿으니, 원수가 대희하여 그 배를 타고 순식간에 강을 건너 남산을 돌아들어 석교를 지나 정히 종남산을 바라고 말을 짓쳐 들어가며 자세히 살펴보니, 장안 삼거리 에 무수한 사람이 삼대같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오색 기치를 세우고 한 수레 위에 한 부인을 달았거늘, 원수가 생각하되, ‘이는 반드시 부인이다.’
 하고 금편을 들어 말을 치니, ㉢ 이 말은 비룡마(飛龍馬)라. 순식간에 살같이 달려 법장(法場)에 다다라 살펴보니, 부인은 기절하였고 무사는 시각을 기다릴 제, 한 대장이 비룡마를

타고 나는 듯이 달려들어 일진(一陣)을 헤치고 수레를 박차며 남자를 안고 슬피 울거늘, 정동한 등이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지라.

원수가 남자를 보고 기절하였더니, 이윽고 정신을 진정하여 울며 왈,

“부인아! 부인아! 김진옥이 여기 왔나니, 부인은 정신을 수습하십시오.”

하니, 이때 애운이 곁에 앉아 울며 왈,

“한강수에 빠져 죽었던 애운이 여기 왔나이다. 모친은 진정하십시오 부친을 뵈십시오.”

하고, 얼굴을 한데 대고 텅굴며 통곡하니, ㉠ 천지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이 다 슬피하더라.

㉡ 남자 어찌 살아나지 못하리오. 원수가 용왕이 주던 진주를 입에 넣으니, 오래지 아니하여 호흡이 통하며 눈을 떠 원수를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애운의 손목을 잡고 느끼거늘, 원수가 그 모자의 경상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니 분심이 충천하여 동한 등을 잡아 급히 죽이려 하되, 일반 대관(大官)을 천자의 명령 없이 자진 처치함이 신자의 도리가 아니라, 십분 잉분(仍憤)하고 오직 부인을 구호하여 집으로 돌아오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무가내하(無可奈何): 달리 어찌할 수 없음.

34.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진옥은 장안에 이르기 전 유 부인이 있을 곳을 생각하고 그곳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 부인을 구했다.
- ② 김진옥은 유 부인을 해치려 한 선영과 동한 등을 응징하려면 천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③ 용왕은 김진옥의 공과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적어 천자에게 알리려 하고 있다.
- ④ 난영은 유 부인이 억울하게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다.
- ⑤ 애운을 죽이라는 명을 받은 무사는 애운의 처지를 애처롭게 여겼다.

35. [가]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난관에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긴장감을 높여 주고 있다.
- ② 주인공의 심정과 조용하는 배경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상황에 대응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나타내어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주인공과 주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나타내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알려 주고 있다.
- ⑤ 주인공에게 일어난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과정을 제시하여 사건의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김진옥전」은 이질적 세계라 할 수 있는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수중계와 지상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중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을 대하는 것과 지상계의 인물들이 주인공의 가족을 대하는 것이 대비되도록 설정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 둘째, 수중계와 지상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제시하여 두 세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소재를 활용하여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 ① 용왕이 용신으로 하여금 애운을 살리게 한 것은, 수중계의 인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중계와 지상계의 연계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김진옥이 ‘진주’를 활용하여 유 부인을 살리는 것은, 수중계의 신물이 지상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소재를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김진옥이 용왕의 수부를 보전하는 데 공을 세운 것은, 지상계의 인물이 수중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건을 통해 두 세계의 연계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④ 수중계에서 김진옥이 환송을 받는 사건에 이어 지상계에서 애운이 위기에 처한 사건을 제시한 것은, 애운의 처지를 부각하여 서사의 흥미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부채’, ‘칼’, ‘금표통’의 신이한 능력을 제시한 것은, 김진옥이 그것들의 능력으로 수중계와 지상계를 넘나들 수 있음을 나타내 두 세계의 상호 영향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7.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과 ㉡ 모두 독자로 하여금 뒤이어 일어날 사건을 짐작케 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처지에 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 ⑤ ㉡은 ㉠과 달리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 몸이 한가하여 산수간(山水間)에 절로 늙어
 功名부귀(功名富貴)를 뜻 밖에 잊었으니
 차중(此中)에 청유(淸幽)한 흥미(興味)를 혼자 좋아 하노라
 <제1수>

조그만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혼자 있어
 청풍명월(淸風明月)을 벗 삼아 누웠으니
 세상(世上)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나는 몰라 하노라
 <제2수>

늙고 병든 몸을 세상이 버리실새
 조그만 초당(草堂)을 시내 위에 일워 두고
 목전(目前)에 보이는 송죽(松竹)아 내 벗인가 하노라
 <제4수>

산림(山林)에 들어온 지 오래니 세상사(世上事)를 모르노라
 ㉠ 십장 홍진(十丈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물외(物外)에 뛰어난 몸이 보은(報恩)이 어려워라
 <제5수>
 - 이홍유, 「산민육가」 -

(나)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를 구경을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을 들어를 가니, ㉢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 일도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난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이 좋을세고. 도화 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 축수 애삼춘(魚舟逐水愛三春)이어든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중략)

층암절벽상의 폭포수는 쿵쿵, 수정렴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룩, 저 골 물이 쫄쫄,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쿵쿵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 허유*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주곡제금*은 천고절(千古節)이요, 적다정조*는 일년풍(一年豐)이라. 일출 낙조가 눈앞에 벌어나 경개 무궁(景概無窮) 좋을세고.

- 작자 미상, 「유산가」 -

* 소부 허유(巢父許由): 중국 요순시대에 속세를 벗어난 삶을 살았던 인물들.
 * 주곡제금(奏穀啼禽): 두견새.
 * 적다정조(積多鼎鳥): 소쩍새.

(다)

산은 언제 어디다 이렇게 많은 색소를 간직해 두었다가, 일시에 지천으로 내뿜는 것일까?

단풍이 이렇게까지 고운 줄은 몰랐다. 문 형은 몇 번이고 탄복하면서, 흡사히 동양화의 화폭 속을 거니는 감흥을 그대로 맛본다는 것이다. 정말 우리도 한 떨기 단풍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 다리는 즐기요, 팔은 가지인 채, 피부는 단풍으로 물들어 버린 것 같다. 옷을 훨훨 벗어 꼭 쥐어짜면, 물에 행귀 낸 빨래처럼 진주홍 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것만 같다.

그림 같은 연화담(蓮花潭) 수렴폭(垂簾瀑)을 완상하며, 몇 십 굽이의 석계(石階)와 목잔*과 철삭*을 답과하고 나니, 문득 눈앞에 막아서는 무려 삼백 단의 가파른 사닥다리 — 한 층계 한 층계 한사코 기어오르는 마지막 발걸음에서 시야는 일망무제(一望無際)로 탁 트인다. 여기가 해발 오천 척의 망군대(望軍臺) — 아! 천하는 이렇게도 광활하고 웅장하고 숭엄하던가!

이름도 정다운 백마봉은 바로 지호지간(指呼之間)에 서 있고, 내일 오르기로 예정된 비로봉은 단걸음에 건너될 정도로 가깝다. 그 밖에도 유상무상(有象無象)의 허다한 봉들이 전시(戰時)에 할거(割據)하는 영웅들처럼 여기에서도 우뚝 저기에서도 우뚝, 시선을 낮춰 아래로 굽어보니, 발밑은 천인단애(千仞斷崖), 무한계(無限際)로 뚝 떨어진 황천 계곡에 단풍이 선혈(鮮血)처럼 붉다. 우러러보는 단풍이 새색시 머리의 칠보단장(七寶丹粧) 같다면, 굽어보는 단풍은 치렁치렁 늘어진 규수의 붉은 치마폭 같다고나 할까. 수줍어 수줍어 생글 돌아서는 낮 붉힌 아가씨가 어느 구석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도 같구나!

저물 무렵에 마하연(摩訶衍)의 여사(旅舍)를 찾았다. ㉤ 산중에 사람이 귀해서였던가. 어서 오십사는, 상냥한 안주인의 환대도 은근하거니와, 문고리 잡고 말없이 맞아 주는 여관집 아가씨의 정성은 무르익은 머루 알같이 고왔다.

여장(旅裝)을 풀고 마하연사를 찾아갔다. 여기는 선원(禪院)이어서, 불경 공부하는 승려뿐이라고 한다. 크지도 않은 절이건만, 늙은 승려만도 실로 삼십 명은 됨 직하다. 이런 심산에 노승이 그렇게도 많을까?

┌ 무한청산행욕진(無限靑山行欲盡)
 [A] └ 백운심처노승다(白雲深處老僧多)

옛글 그대로다.

노독(路毒)을 풀 겸 식후에 바둑이나 두려고 남포등 아래에 앉으니, 온고지정(溫故之情)이 불현듯 새로워졌다.

“남포등은 참말 오래간만인데.”

하며 불을 바라보는 문 형의 말씨가 하도 따뜻해서, 나도 장난삼아 심지를 돋우어 보았다 줄여 보았다 하며, 까맣게 잊었던 옛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운 얼굴들이, 흐르는 물의 낙화(落花) 송이같이 떠돌았다.

- 정비석, 「산정무한」 -

* 목잔(木棧): 나무로 사다리처럼 놓는 길.
 * 철삭(鐵索): 철사를 꼬아서 만든 줄.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밝히고 있다.
- ③ (가)와 (다)는 움직임의 나타내는 어휘를 반복하여 대상의 역동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어조의 변화를 통해 화자나 글쓴이의 심리 변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39.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속세와 거리를 둔 처지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아름다운 경치를 보러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③ ㉢: 꽃이 활짝 피어난 봄의 계절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주위의 단풍과 물아일체가 된 심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마하연 여사의 퇴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의 작가와 같은 사대부들은 관직에 오르지 못했거나 관직에서 물러났을 경우, 주로 자연에 귀의하여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였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바를 시가를 통해 표현하였다. 하지만 (나)와 같이 평민 계층의 전문 가객들이 부른 잡가에 나타나는 자연은 주로 아름다운 풍광의 재현을 통해 청중들이 대리 체험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잡가의 자연은 감각적 흥을 극대화한 이상적인 유흥(遊興)의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 ① (가)의 '공명부귀'는 화자가 관직에 나아가 이룰 수 있는 세속적 가치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조그만 이 내 몸'은 자연 속에서 심리적 위안이 필요한 속세에서의 화자의 모습을 일컫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내 벗인가 하노라'는 화자가 자연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는 화자가 자연을 이상향의 이미지와 연결시켜 이상적인 유흥의 공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경개 무궁 좋을씨고'는 화자가 아름다운 풍광을 통해 감각적 흥을 느끼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41.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마하연 여사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여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백마봉에서 비로봉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다른 여정에 비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③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화담과 수렴폭을 둘러보았음을 밝히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사실과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며 망군대 등정 과정과 망군대에서의 조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마하연 여사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한 말에 공감하며 오늘 여정 중에 발생한 일행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의 ㉣에 들어갈 대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A]는 당나라 승려 영일(靈一)이 지은 한시의 일부로 '한없는 청산 끝나 가려 하는데, 흰 구름 깊은 곳에 노승도 많아라.'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글쓴이가 처음에 황혼 무렵 마하연사 주변에서 바라본 단풍의 애상적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해 '저녁별 아래 수레 멈추고 단풍 일 바라보니(停車坐愛楓林晚), 서리 물든 가을 잎 봄꽃보다 더 붉네.(霜葉紅於二月花)'라는 구절을 인용하려 했다가, 퇴고 과정에서 생각을 바꾸어 [A]를 인용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 단풍에 대한 묘사를 지속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개상의 단조로움을 피해 (㉣)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마하연사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그곳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려는
- ② 마하연사에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알리려는
- ③ 마하연사의 유래와 마하연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절인지 소개하려는
- ④ 마하연사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아 방문하는 데에 고생이 많았음을 나타내려는
- ⑤ 마하연사에 옛날과 달리 종교적 교리를 익히기 위해 애쓰는 승려가 없음을 비판하려는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썩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열무를 심어놓고 게을러
뿌리를 놓치고 줄기를 놓치고
가까스로 꽃을 얻었다 공중에
흰 열무꽃이 파다하다
채소밭에 꽃밭을 가꾸었느냐
사람들은 묻고 나는 망설이는데
그 문답 끝에 나비 하나가
나비가 데려온 또 하나의 나비가
흰 열무꽃잎 같은 나비 떼가
흰 열무꽃에 내려앉는 것이었다
가녀린 발을 딛고

3초씩 5초씩 **짧게짧게** 혹은
그네들에게 보다 **느슨한** 시간 동안
날개를 접고 바람을 잠재우고
편편하게 앉아 있는 것이었다
설핏설핏 선잠이 드는 것만 같았다

발 딛고 쉬라고 내줄 곳이
선잠 들라고 내준 무릎이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는 없었다
내 열무밭은 꽃밭이지만
나는 **비로소** 나비에게 꽃마저 잃었다

- 문태준, 「극빈」 -

43.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공간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청자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A] ~ [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이 계기로 작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가)는 오랜만에 들른 고향에 신고 갔던 '구두'를 통해, 고향에 대해 무심한 채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나)는 '열무꽃'에 앉은 '나비'의 모습을 계기로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강물소리'를 듣고 온 '구두'는 '귀'가 '얼어' 있는 화자의 모습과 대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군.
- ② [B]: '꿈틀'대는 '부끄러운 축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모습과 연결되고 있군.
- ③ [C]: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허락하지 않은 '고향'의 모습은 화자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드러낸 것으로서, 화자가 '건성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군.
- ④ [D]: '망설'임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화자의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서, 화자가 '열무꽃에 내려앉는' '나비'를 바라보는 것과 연결되고 있군.
- ⑤ [E]: '내줄 곳'과 '내준 무릎'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그것이 '없었'던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이 드러나는군.

45.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찰랑찰랑'에서 '출렁출렁'으로의 어감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초면'과 '구면'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과거 경험이 내포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짧게짧게'와 '느슨한'의 대비를 통해 동일한 것도 주체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편편하게'와 '설핏설핏'을 통해 예기치 않게 조성된 화자의 상황이 대상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까스로'와 '비로소'를 통해 본래의 의도가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